

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		<h1>보 도 자 료</h1>			
배 포 일	2021. 7. 7.	작성부서	기획운영실		
실 장	이 창 희	전 화	041-944-2025		
담 당 자	장 정 음				

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창립 1주년, 성과와 과제

- 주민에게 사랑받는 조직, 행정의 정책파트너, 일하고 싶은 일터 -

- ❖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(이사장 김윤호 부군수, 이하 지역활성화재단)은 지난 7월 2일, 남양면행복나눔터에서 창립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및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.
- ❖ 지역활성화재단은 농업,농촌,농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2020년 7월 1일 설립된 청양군 출자,출연 기관이며 1실 2센터 6개팀이 푸드플랜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- ❖ 지역활성화재단 김윤호 이사장은 재단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“공공성, 전문성, 투명성을 겸비한 재단, 가족소농과 취약계층을 우선에 두는 사업추진, 현장을 조직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❖ 또한 지난해 8월, 청양먹거리직매장(유성점), 공공급식물류센터,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등을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다.
- ❖ 지난 1년여 간 지역활성화재단은 청양군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.
- ❖ 첫 번째로 푸드플랜 사업의 통합추진으로 500여농가가 참여중이며, 매월 약 200여 농가가 월평균 약 100만원의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. 또한 지역 약 70여개의 공동체가 가공식품 등을 생산 및

판매하면서 개장 9개월 만에 청양떡거리직매장(유성점) 매출 20억을 달성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. 이에 군은 유성점의 성과를 바탕으로 직매장 2호점 개장을 위해 입지선정과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.

- ❖ 두 번째로 지역 내 취약계층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열었다. 그간 지역공동체 발굴-육성-자립화를 위한 함께이음 정책, 취약계층 복지급식 등의 사업성과를 인정받아 농촌협약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. 농촌협약은 3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, 5년간 총 434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. 농촌협약의 핵심과제가 바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 해결이고, 향후 이를 통해 의료, 사회복지, 보육 등에 있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것 이다.
- ❖ 세 번째로 민관 거버넌스에 기초한 사업으로 통합적 정책 추진, 민관협업의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. 1년여 간 지역활성화재단은 청양군 8개과 14개팀과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해왔으며, 500여 농가와 매일매일 만나고 있다. 또한 약 70여개의 공동체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, 매년 약 30여개의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조직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 이렇듯 재단이 청양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과 주민간의 다양한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고, 실행하므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는 평가다.
- ❖ 올 하반기 지역활성화재단은 농촌협약의 사업계획 점검 및 운영체제 구축, 대전광역시 소재의 공공기관 공공급식 납품, 칠갑마루 쇼핑몰 운영, 떡거리종합타운 2차 부지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확보 등 사업기반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.
- ❖ 지역활성화재단 김윤호 이사장은 “재단이 농업문제와 농촌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다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조직, 행정의 정책 파트너, 직원이 일하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